

안양규 교수의 경전이야기 <33>



소음공해

더운 여름날이다 보니 집안의 문들을 모두 열 어놓게 된다. 바람이 불어와 더위를 식혀주니 좋 지만 한편으론 시끄러운 소리가 함께 들어와 짜 증나게 한다. 열린 창문을 통해 온갖 종류의 소 리들이 여과없이 요란스럽게 들려온다. 도로를 질주하는 자동차 소리, 인근 공사장에서 들려오 는 기계 작업 소리, 야캣집에서 흘러나오는 텔레 비전 소리, 계란과 과일을 사라는 광고 소리 따 위가 반복된다. 새 소리나 풀벌레 소리 등 자연 의 소리보다도 인간과 기계가 만들어 내는 소리 가 사람들의 신경을 곤두세우게 하고 지치게 만 든다. 요즘은 대도시의 매미 소리는 자동차 소리와 경쟁하기 위해 더 요란하게 소리를 내어 어떤 시민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한다. 환경문제 중 소음 공해도 막대하다는 연구 보 고서가 나오고 있다. 시끄러운 소리는 집중력 저하, 수면 방해, 청각 장애도 일으켜 건강을 해 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소음은 호르몬의 불균형, 심혈관의 장애를 일으키기도 한다. 국립환경연구원이 전국을 대상으로 소음의 정도 를 측정해 보니 국민 대부분이 소음 때문에 신 경이 날카로운 상태에 놓여 있다는 보고서를 발

비구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들은 여기 모여 무 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비구들은 사실대로 조금 전 했던 이야기들을 아뢰었다. 세존께서는 말씀하셨다. “그만두어라, 비구들아. 그따위 이 야기들은 그만 두라. 왜냐하면 그런 이야기는 아무 의미도 없고 또 선법으로 나아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로는 범행을 뒤을 수 없고, 번뇌가 완전히 사라진 열반을 얻을 수 없으며, 사문의 평등한 길도 얻을 수 없느니라. 그것은 모두 세속 이야기로서 바른 길로 나아가 는 이야기가 아니다. 너희들은 이미 세속을 떠 나 도를 닦고 있다. 그러므로 수행을 무너뜨리 는 그런 이야기를 생각할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흔히 몰두하는 화제는 연예인, 유명한 운동선수, 텔레비전 드라마에 관한 이야기이다. 어느 여배우가 결혼을 한다느니, 혹은 이혼을 한다느니, 어느 배우가 연기를 잘 한다느니, 아 무게 골프 선수의 연봉이 얼마라든지, 어느 레 스토랑의 음식이 맛있단지, 아파트 가격이 얼 마 올랐단지, 어느 지역에 사둔 땅이 대박을 터뜨렸단지 하는 이야기들이 사람들 입에 자 주 오른다. 그렇지 않으면 특정인을 비난하거 나, 무엇인가에 불평하는 소리거나, 억울하다고 하소연하는 소리들이다. 부처님은 이런 종류의

붓다 가르침에 어긋나는 이야기는 소음 열가지 법의 공덕을 주제로 삼아 말하라

표했다. 너무나 소음에 익숙해져 있어 웬만한 소음에 신경을 쓰고 있지만 자신도 알지 못한 채 소음의 공격을 계속 받고 있는 것이다. 생쥐 를 대상으로 소음의 피해를 조사해 보았더니 소 음에 노출된 쥐들은 그렇지 않은 쥐들에 비해 건강이 급격히 떨어졌다고 한다. 지속되는 소음 은 심신을 괴롭히는 스트레스임에 분명하다. 자동차 소리 등 기계 소리도 듣기 싫지만 사 람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도 그렇다. 아니 어떤 경우엔 기계 소리 보다 더 듣기 싫을 때도 있다. 불평하는 소리, 거짓말 소리, 아첨하는 소리 따 위는 마음을 파괴하게 한다. 이런 파괴적인 말 은 아니더라도 무의미한 잡담도 비생산적인 것 입에 틀림없다. <증입아함경>에 전해지고 있는 이야기이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급 고독원에 계시 때의 일이다. 그 때 많은 비구들 은 식사를 마치고 모두 보회강당(普會講堂)에 모여 다음과 같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다. 즉 의복 · 장식 · 음식에 관한 이야기, 이웃나라 · 도적 · 싸움에 관한 이야기, 술 · 음탕 · 다섯 가 지 유희에 관한 이야기, 노래 · 춤 · 놀이 · 풍류 에 관한 이야기 등, 이런 이야기들이 그칠 줄 몰 랐다. 그 때 세존께서는 곧 보회강당으로 가서

이야기는 번뇌에 가득한 것으로 열반의 성취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단언하고 있다. 대신 다음과 같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라 고 충고하고 있다. “만일 너희들이 이야기하고 싶거든 열 가지 법의 공덕을 이야기하라. 열 가 지만 어떤 것인가? 정근하는 비구로서 욕심이 적고, 만족할 줄을 알며, 용맹스런 마음이 있고, 많이 들어 남을 위해 설법하며, 두려움이 없고, 계율을 완전히 갖추며, 삼매 · 지혜 · 해탈을 성 취하고, 해탈한 지혜를 성취하는 것이다. 만일 너희들이 이야기하고 싶으면 이 열 가지 일을 이야기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일체를 운택 하게 하고, 이익 되는 바가 많으며, 범행을 뒤케 하고, 번뇌가 완전히 사라진 힘이 없는 곳에 이 르게 하며, 열반의 요긴한 길이기 때문이니라.” 10가지 화제는 결국 한마디로 말하자면 계으 름을 피우지 아니하고 지혜와 열반을 성취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연예인에 관한 이야기 말고 훌륭한 수행자에 관해 이야기하고, 돈 버는 이 야기 대신에 열반의 성취에 관해 이야기하라는 것이다. 붓다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이야기들은 가장 큰 소음 공해에 들어갈 것이다.

동국대(경주) 불교학과



80이 가까운 노구에도 도량식을 손수 들고 예불묵탁까지 직접 잡는 활안 스님. 쉬지않고 발에서 울려하던 스님이 잠시 쉬고 있다.

마음 바로 서면 단박에 밝아져



지상 백고좌 활안 스님

(송광사 천자암 조실)

조계산 천자암을 찾은 날이 맑박이었다. 이날, 떠 약법 아래 산길을 오르는 것 자체가 그대로 수행이 었다. 사실, 떠날 때부터 수행이 심정이었다. 며칠 전 천자암을 찾았다가 법문은커녕 사진 한 컷도 건 쳐오지 못하고 쫓겨난 터였기 때문이다. “솔데없는 소리 지껄이게 하지마. 입만 아파” “아무리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면서 무슨 말을 하란 말이야.” 분명 세속의 노인네 심술은 아닌 듯 싶었다. 무슨 뜻이 있으면도 통할 수가 없었다. 50년 남게 묵숨 걸고 정진한 큰스님과 어썰튼 재 기불자의 만남은 처음부터 이렇게 어색했다. 더구 나 서쪽을 향한 스님방은 한여름 오후가 되면서 가 마술마냥 짙는 듯했다. 마침 공양주보살이 된 감자를 내놓자 스님이 유 독 노란 감자를 들고서 한마디 했다.

“내가 감자밭에서 변을 봤는데 이것이 그 자리에 서 나온 것이여. 맛이 기막히게 좋지. 자네도 감자 나 먹고 여여 내려가.” 말 그대로 ‘감자’ 먹고 말았다. 법당옆 쌍향수 아 래의 수각에 있는 병수로 끓는 속을 식혀야만 했다. 이번엔 아이들을 동행시켰다. 더위에 지쳐 움직 이기 싫어하는 아이들에게 “교과서에 나오는 나무 (쌍향수 · 천연기념물 88호)도 보고 큰스님도 친견 하자”고 꼬드겼다. 아이를 동행시킨 것은 성공했다. 도인이 도인을 알 아보듯, 동안(童顏)의 큰스님과 아직 때가 덜 문은 아이들과의 대화는 술술 이어졌다. “아아, 아가아, 너 나이를 바로 먹었다. 거꾸로 먹

었냐. 아니면 옆으로 먹었냐.” “잘 모르겠어요.” “그냥 먹었다고 해라.” “아가아, 너 잘 생겼나 못 생겼냐.” “그냥 생겼어요.” “그러지 말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게 생겼습니다. 그래라.” “아아, 너그 아버지는 어디가서 거짓말해 서 너희를 먹여 살린다냐.” “...” “마음이 밝지 못하면 세상이 다 거짓말입니다. 그래라.” “아아, 너는 무슨 세나, 말 잘하는 영부세 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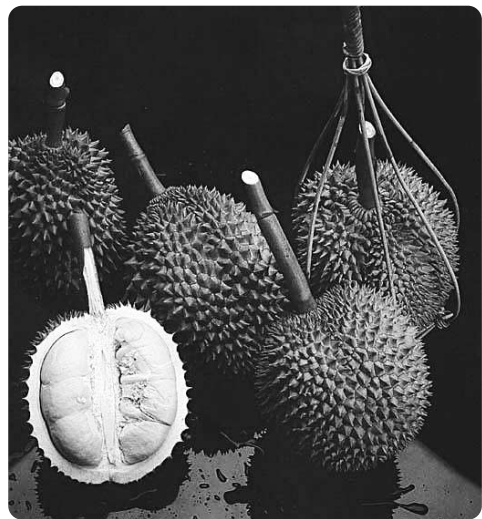


천진불(天真佛)들은 서로 통하는 것일까. 큰스님과 아이들의 선문답(?)이 정겹기만 하다.

부처님께서 즐겨 드셨던 두리안(DURIAN)

부처님께서 즐겨 드셨던 과일 두리안! 이제 태국까지 직접 가지 않아도 열대지방에서 '과일의 왕'이라는 두리안을 편하고 저렴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 두리안에는 탄수화물, 단백질, 비타민B,C가 풍부하며, 건강효과도 탁월합니다.
- 무게 : 약 3Kg
- 지름 : 20~30Cm
- 원산지 : 태국
* 태국에서 영아 40℃ 급냉 직송하여 냉장장고에 보관중
- 가격 : 1개 35,000원
2개 이상 구입시 개당 30,000원
* 택배비 무료 (제주도, 도서지역 제외)



- 현재 백화점에서 상태에 따라 50,000원~120,000원에 판매중

■ 판매 및 문의 : 불자기업 향다원
Tel 031)797-1357 / 031)882-1357 / H·P 011-474-1345 / 019-229-1345
입금계좌 : 농협 100023-56-156761 예금주 : 조명숙

전화주시면 두리안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립니다.

현대불교신문 창사10주년 독자사은대잔치

* 탄허스님의 육성법문 일부분은 탄허닷컴(www.tanheo.com) 육성듣기 코너에서 직접 들을 수 있습니다.

출고경가 15타 12만 6000원

참고교재 1권 포함 5만원 (74.8% 할인)

단! “500분” 계만! 기회를 드립니다

<<탄허스님의 佛 · 儒 · 仙 · 華嚴 특강(CD18매)>>

탄허스님 육성 강의 (중앙사상 특강 CD)

탄허 대종사께서 1977년과 1982년 동만기 기간에 전국 강원의 중강이상의 스님 80여 명을 대상으로 하루 8시간씩 강의한 내용을 녹음한 250여 개의 테이프를 간추려 18장의 CD에 담아 처음으로 공개하는 스님의 육성 강의

■ 판 매 책 방 : 여시마문 전화 02)737-0695(www.yosiamun.com)
마 하 물 : 주문전화 02)732-1520 (www.mahamall.co.kr)
주 소 : 서울 중로구 견지동 110-33



“사람입니다. 그래라.”
 막둥이와 한참 선문답(?)을 나누는데 이상하게도 스님이 묻고 대답까지 가르쳐 준다.
 이쯤해서 조심스레 스님께 한 말씀 청했다.
 “내가 보물을 하나 알려주지. 어느 것이 보물이나 하면 밝은 것이 보물이야. 어떻게 밝은 것이냐 하면 근거가 없이, 상대가 없이 단번에 밝은 것이 보물이거든. 말 그대로 단번에 밝는다면 대동태허에 마음이 주인이 되지.
 우주의 주인인 마음이 바르게 서 있으면 단박에 밝아질 때 판단력이 생겨나는거야. 판단력이란 쉽게 말하면, 거울을 볼 때 ‘내가 거울 앞에 선다’고 말하지 않아도 거울 앞에 서면 그대로 보여지듯 생겨나는거야. 이 보물을 찾아야 해.
 그런데 이것이 쉽게 찾아질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한눈 팔지 말고 노력해야해. 그러다보면 단박에 밝아지는 날이 와.”

활안(活眼) 스님은 1926년 담양에서 태어나 부모를 일찍 여의고 어려서 병을 얻어 큰 고생을 했다. ‘죄없이 병으로 고통받는 육체’에 대한 의문을 안고 1946년 월정사로 출가했다. 이후 상원사 칠불암 범어사 용화사 등 제방선원에서 40년간을 성단했다. ‘나고죽는 이전의 나는 무엇인가(生滅未生前是甚麼)’를 화두로 정진하던중 광양 백운산에서 오도승을 올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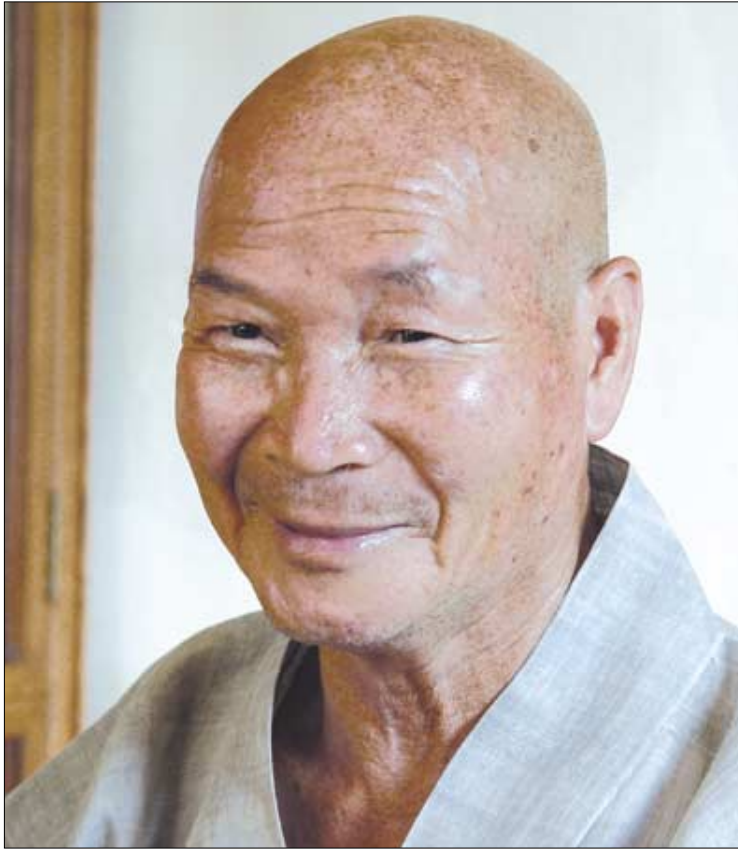
通玄—囑萬機伏 / 言前大機傳法輪 / 法界長月一

“자나깨나 한눈 팔지 말고
 부처님 존경하면 지혜 생겨”
 울력 보통사람 2~3배 거든

掌明 / 萬古光明長不滅
 동현의 활에 온갖 번뇌망상 굴복하니 / 말 이전에 한소식이 범륜을 전하도다 / 삼라만상 한 손바닥에 밝았으니 / 이 도리는 만고에 다함이 없네.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먹지 않는다”는 <백장청구> 마냥 천자암에도 울력은 생활 자체이다. 암자에 떨어진 채마밭은 물론 차밭과 감자밭에서 대중들은 잠시도 쉬지 못한다. 활안 스님은 마치 조계산 호랑이와 같다. 일을 할 때도 웅맹정진하듯 밀어붙여 보통사람의 2-3배를 한다.

머칠전 감자밭에서 크기에 따라 감자를 골라 담은 대중들에게 벼락같은 불호령이 떨어졌다.
 “하루해가 다 가는데 빨리 주워 담지 않고 일일이 세고 있느냐.”
 대중들은 앉위거리지 않고 해떨어지기 전에 일을 마쳤다. 다음날 하루종일 비가 내렸다. 대중 가운데 활안 스님만 그 소식을 알았던 것이다.
 천자암을 나설 때쯤 되자 다시금 스님이 아이들에게 인사말 삼아 한마디 건넨다.
 “부처님을 존경하면 너희들도 부처님을 닮아 가게 된다. 이것이 생활 속에서 하는 공부야. 학교에서 하는 공부가 세상 살아가는 법을 배우듯이, 부처님을 존경하고 따르면 부처님의 지혜와 복력이 자기한테 오기 마련이야. 그렇게 공부해라.”
 글·사진=이준엽 기자



‘조계산의 호랑이’로 불리는 활안 스님은 일어든 수행이든 직접 용맹정진하는 모습을 보인다.

호트리짐 없는 구도열에 도반들 감명

고승 스님이 들려준 사형 활안 스님

“50년전, 오대산 상원사와 북대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성불’을 위해 기도와 수행으로 초지 일관하던 모습이 생생합니다. 그때 스님의 구도 열을 지켜보면서 저뿐 아니라 함께 정진하던 도반들이 흠여져가던 공부를 바로잡곤 했습니

“천자암 생활은 한마디로 정진과 울력의 연속으로 그대로가 수행이다”고 소개했다.
 고승 스님의 설명대로 활안 스님의 정진은 세간에서 유망하다. 세수 80이 가까운 노구에도 새벽 2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도량석을 손수 들고 예불묵묵까지 직접 잡는다. 새벽예불에는 만생명을 위한 축원이 끊없이 이어진다. 이평의 유주무주 영가와 징용, 만리장성, 세계대전 회상, 가스실에서 죽어간 유대인은 물론 미국 9.11희생영가 등등, 시공을 떠나 이들 영가를 위해 매일 천도재를 올리는 것이다.
 특히 정초와 백중 때는 일주일간 하루 17시간씩 사분정진을 한다. 그것도 곳곳이 서서 목탁을 치며 하는 기도여서 함께 시작했던 젊은 스님들도 버티내지 못하고 나가떨어지곤 한다.
 “어느 정도 어른이 되면 문을 닫는 것이 오늘날의 한국불교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큰스님은 아무나 부담없이 친견할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놓고 계십니다. 이것이 자비심 활활 넘치는 큰스님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매일 새벽예불마다 유주무주 영가와 전정희생자들 위해 천도재 올려

“이번 하안거를 천자암에서 하고 있는 고승 스님은 “활안 스님과 첫 만남에서 홀트러짐 없는 수행력에 감복해 사형으로 모시게 됐다”고 회고하고 “큰스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수행에 있어 한치도 변함없다”고 말했다.
 고승 스님은 “큰스님은 승속을 떠나 게으른 것은 용납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쫓아낸다”며

진각 스님의 스님이야기

원각 스님

은사스님인 혜암 스님은 평생 동안 수행자로서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는 수행자의 근본됨에 충실한 삶을 사셨다. 행자시절부터 장좌불와(長坐不臥)를 남이 잠지듯 하고, 남들이 깨니때마다 밤 먹듯 단식을 하셨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화두를 든다는 것은 중생의 삶이 덧없음을 이미 체험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칼날 같은 선풍(禪風)의 스님에게 한 옛된 고승 학생이 한 수 가르침을 받았다고 찾아왔다. 혜암 스님이 지리산에서 일대사 공부하던 시절은 가히 법인들은 흉내 내지 못할 만큼 엄격하고 철저한 수행을 했던 시절이었다.
 스님은 “사할 주지등 소임을 사는 것과 상좌를 받는 행위는 공부에 방해된 필 뿐이다. 오히려 지

마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책하기 위해서 밤 곁에 장을 내서는 것이다.”고 하셨다. 이렇게 잠시도 빈틈없이 마음을 다잡는 스님을 시봉하는 일이 마음뒀는 공부 하는 것 보다 훨씬 어려울 수 있다. 내 마음의 그곳은 사실 본인인 내가 가장 잘 안다. 그런 면에서 원각 스님은 마음이라는 그곳이 갖춰진 수행자라고 할 수 있다.
 원각 스님은 은사스님으로부터 수행의 가풍을 그대로 이어 받고 제방의 선원에서 정진했다. 선원에서 입승 소임을 맡아서 대중을 이끌어 나갈 때에도 스님의 성품처럼 있는 듯 없는 듯 한철을 보냈다. “대중이 모여서 공부하는 것은 호통을 친다거나, 모이란다igo 모여서 공부하는 타율적인 집단이 아니므로 자연스럽게 알아서들 공부해야 저절로 공부가 된다.”는 것이 스님의 지론이다. 원각 스님은 모든 일이 순리대로 풀려야 하며 또 몫스 그렇게 되도록 실천한다.
 마음공부로 기초를 닦은 뒤에는 거장 가초의 고건사에서 기도와 포교로 부처님의 말씀과 사상을 지역민에게 알리는 주지소임도 맡아서 해

은사 혜암 스님 수행가풍 그대로 모든일 상대방 입장서 처리

보았다. 조석 예불과 사시기도까지 몫스 꾸준하게 하니 자동차도 올라오지 못하는 교통이 불편한 곳인데도 신도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신도계층도 다양했다. 그 까닭은 젊은 사람들에게겐 그들에게 맞게, 할머니들은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친절하게 대했기 때문이다. 시골 할머니들은 부처님오신날이나 백중 등 사찰의 큰 행사가 있을 때에는 절에서 하룻밤을 묵는다. 도회지에서 온 사람들이나 젊은 사람들은 작어도 각방을 원하는데 반해서 할머니들은 큰방에서 도란도란 얘기하다가 한방에서 잠들기를 원한다. 그래서 원각 스님은 도회지 사람들의 불편함을 알면서도, 시골 할머니들의 취향대로 큰방을 사용했다. 또 웬만한 먹을 거리는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무나 배추농사를 잘 지어야 하는데 원각 스님은 농사짓기에도 능한 솜씨를 보인다.
 스님은 모든 일을 상대방의 입장에서 헤아리며 풀어나간다. 일도양단의 폐단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다소 신중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널리 화합을 생각하며 무리 없이 일을 해나간다. 지금은 거대한 살림이 되어버린 해인사 원당암의 감현으로서 해암문도회의 가풍을 이어가기 위해 정진하고있다. 깊은 강은 소리 없이 흐르는 것처럼 스님 또한 말없이 실천으로 안과 밖을 두루 이끌어 가고 있다. 소리와 말이 없어도 시간은 세월이 되고, 자연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처럼 말이 없는 가운데 스님의 가풍이 저절로 익어가고 있음을 느낀다.

■ 해인사 원당암

“천년전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옛 신라인은 수 많은 불교 문화유산을 남겼습니다. 아직도 이 땅 곳곳에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신라인의 불심과 손길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석굴암은 불교신앙을 대표하는 부처님 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국석재조각예술원은 이러한 신라인의 마음으로 소임을 다합니다. 천년 전 신라인의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문화재청 등록 조각기능보유자

석재조각의 대가

동국석재조각예술원

전화: 031) 531-8736 팩스: 031) 531-5549 휴대폰: 011-284-5101

육 법 등 (六法燈)

의정등록제 2002-33243호

용안사(서울·광진구)대웅전에 장엄된 육법등

특징

- 1) 부처님께서 보리수아래서 성도 하신후 49년간 설법을 하시기에 등을 49개 밝히니 그 모양이 마치 보리수 나뭇잎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음
- 2) 더러운 곳에서 물들지 않고 항상 깨끗함을 나타내는 연꽃모양을 만들어 등을 밝힘
- 3) 연등의 밝기를 자유로이 조절하여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음
- 4) 등의 재질을 신주 및 아크릴로 제작하여 변형 및 변색이 되지 않음

활용 범위

- 1) 법당내 상단 부처님전 조명 및 장엄등
- 2) 지정단 영가천도를 위한 49세 및 각종 제사단에 활용
- 3) 각단의 인등 및 장엄 등으로 활용 가능함
- 4) 예식장의 주례단 단상의 장엄 및 촛불 대용으로 활용가능
- 5) 장례 예식장의 영가단에 화환대신 장엄 가능함
- 6) 등 장엄이 필요한 각 단상 및 기타장소

(주)동원전기 주 소 : 경기도 포천군 포천읍 설운리 290-1
 전 화 : 031)541-1417 / 팩 스 : 031)541-1419 추천 및 대리점 모집